

절망을 희망으로... 사랑의 손길 30억 기적



우리 사회에는 가난과 질병,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며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건물 폭대기에 있는 교회에 가기 위해 계단을 기어올라야 했던 척추장애 목사, 불에 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집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했던 노부부와 어린 손자들, 백혈병에 걸려 죽어가는 딸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치료비를 구하러 다니던 가난한 아버지...

절망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던 이들에게 CBS는 따뜻한 사랑과 밝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 CBS TV '수호천사...' 따뜻한 감동

CBS TV의 대표적인 이웃사랑 프로그램인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눴시다'. 이 프로그램이 첫 방송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3월 19일이었습니다. 첫 MC는 다일복지재단의 최일도 목사였고 이후 텔런트 한인수 장로, 원주밥상공동체 허기복 목사를 거쳐 현재 텔런트 김명국 집사가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첫 방송 후 5년간, '수호천사'는 위기에 처한 280여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소외가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국내는 물론,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등 빈곤국의 위기 가정들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방송 5년간 280여명에게 30억 지원

지금까지 본 방송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총 30억원. 케이블·위성 PP로서는 경이로운 수치로서 국내외 시청자들과 교회가 만들어낸 기적의 결과입니다. 빈곤, 질병, 사고 등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수많은 가정들이 '수호천사'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호천사'는 소외 가정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자 했습니다. 대부분의 도네이션 방송은 모금액을 전달하고 끝나는 1회성 도움이 많지만 '수호천사'는 지역사회의 교회·복지기관·기업 등을 연결시켜 해당 가정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호천사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랑의 복지재단이나, 경기도 화성시 같



은 지자체 기관 및 복지단체들과 연계해 사랑의 집짓기,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소아암 어린이 돕기, 밝은 얼굴 찾아주기 캠페인 등 세상을 좀 더 희망차게 만드는 사랑 나눔을 펼쳐왔습니다.

교회 중심 '나눔 네트워크'로 발전

이를 통해 질병과 빈곤으로 이중고를 겪는 우리 이웃들이 새로운 용기와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눴시다'는 CBS가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눠주는 진정한 수호천사가 되어 이 사회에 더 큰 기적과 소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재천 CBS사장 인사말 |

방송 선교사역 55년 글로벌 선교비전 실현

존경하는 한국 교계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기독교방송 사장 이재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한국 기독교계의 각 교단과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세계교회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13년 WCC(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의 한국유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국 교계와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1954년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방송으로 설립돼 올해로 창립 55주년을 맞는 저희 CBS기독교방송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도에 힘입어 서울을 포함한 전국 14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라디오와 위성TV, 케이블TV, 인터넷 노컷과 데일리 노컷 신문을 아우르는 종합미디어 그룹으로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CBS는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교회와 사회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독교문화 보급과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광고시장 위축으로 갖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모든 CBS 임직원들은 일치단결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CBS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CBS기독교방송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CBS는 민족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

미국 북장로교 디 캠프 목사, 1954년 한국 첫 민간방송 설립
국민 사랑·신뢰도 1위 바탕 기독교 종합 미디어그룹 발전

CBS는 창사 55년의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방송이다. CBS설립자는 오토 디 캠프 (한국명, 감의도) 미국 북장로교 소속의 선교사다. 한국태생의 선교사 2세인 디 캠프 목사가 방송선교를 평생사역으로 삼은 것은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됐다. 디 캠프 목사는 뉴욕에서 아담스 선교사로부터 '한국에 돌아가 기독교 방송을 설립하라'는 권유를 받는다. 아담스 선교사는 '미국 선교단체를 통해 방송국 설립자금을 지원하겠다'며 강권하다시피 했다. 디 캠프 목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서원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한국에 기독교방송을 세워주시면, 제 인생을 방송선교에 바치겠습니다."

아담스 통해 디 캠프 목사에 미션을 주신 하나님

CBS설립에 있어서 아담스 선교사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 그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미국 뉴욕에서 디 캠프 목사에게 기독교방송 설립을 권유했던 에드워드 아담스 (한국명, 안두화) 선교사는 대구, 경북이 선교활동 무대였다. 미국인 선교사 2세인 그는 디 캠프 선교사와 같은 시기에 일제의 선교사 추방에 따라 미국에 추방된 신세였다.

일찍이, 방송선교에 눈을 뜬 그는 분단 상황에서 한반도 전체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평양, 대구에 기독교방송국을 설립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계명학원 운영 등 교육선교에 전념하던 터라, 디 캠프 목사에게 기독교방송 설립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연합장로회 선교부 총무였던 아담스 목사는 국제선교협의회와 라벤코 (RAVEMCCO, 라디오 및 시청각 전도협의회)이름으로 디 캠프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하고, 방송국 설립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기독교방송 설립의 숨은 공로자였다.

남북 분단이 방송 설립 배경, 아담스 선교사 산파역

디 캠프 목사는 곧바로 콜롬비아 대학교 방송국에서 1년간 방송 실무와 이론을 익힌 뒤, 1948년 한국에 돌아와 CBS설립 작업에 들어갔다. 조선기독교 연합회 (NCCK)에 음영위원회가 구성되고, 디 캠프 목사가 위원장을 맡아 1949년 12월 방송국 허가를 받았다. 방송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당시 교계 지도자들은 신분이 좋겠다고 했지만, 자금을 대는 미국교회의

기독교방송 설립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최초의 방송국 허가는 복음방송은 물론, 뉴스와 교양, 음악을 망라하는 일반 종합 방송이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매체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었다.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었다. 물론 미국교회의 풍부한 방송 선교경험이 바탕이 됐다.

효과적인 방송선교를 위해 종합방송 허가

방송국 개국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6.25전쟁으로 차질이 빚어졌다. 방송장비가 인천항에 들어오다가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기독교 방송국 설립은 한 때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방송국 설립이 늦어진 것이 오히려 은혜였다. 6.25전에 세워졌다면 흔적도 없이 파괴됐을 텐데, 전쟁의 화마를 피해갔다. 하나님은 방송장비를 일본 고베항에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가, 전쟁이 끝난 뒤 1954년 12월 15일 마침내 전파를 쏘도록 하셨다.

한국 기독교의 영적 지도자인 고 한경직 목사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허락하신 2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군복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CBS 기독교방송"이라고 CBS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하시기도 했다.

국민 사랑과 신뢰로 기독교 미디어그룹 성장

CBS는 지금 전파선교라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지? CBS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고 지극하신지? CBS는 민족복음화의 산 증인이요, 한국교회의 최고 영적자산이다. CBS는 앞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1200만 크리스천과 함께 기도행렬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용수 CBS TV 본부장



이정익 CBS이사장 인사말 |

CBS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경제 발전은 물론이고 교회 부흥을 이루게 하셔서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24시간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선교 수단도 허락하셔서 국내는 물론 세계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55년전 CBS를 세우셔서 분단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땅 위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라디오와 TV, 인터넷, DMB, 신문 등 종합미디어로 거듭나게 하셔서 방송통신융합과 정보시대에 걸맞는 효과적인 선교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세계에 흩어져있는 많은 교포와 선교사들이 CBS 위성TV를 시청을 통해 많은 은혜를 공급받고 영적 갈급함을 재충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감동이 앞서고 새로운 도전도 받게 됩니다.

CBS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합 기관이자 선교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귀한 선교 도구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기독교인의 의무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따라 선교적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되는 한국교회와 성도, CBS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현정 앵커 '한국방송대상' 수상

매일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 청취자들 큰 호응

CBS 뉴스시사 FM(98.1MHz) '김현정의 뉴스쇼'의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가 올해 한국방송대상에서 영예의 앵커상을 수상했습니다. 김현정 앵커는 한국방송협회가 제 36회 방송의 날을 맞아 9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한 '제 36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개인상(앵커부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프로그램 전담 제작진은 물론 CBS 보도국 기자들도 적극 참여해 만드는 시사뉴스프로그램입니다.

김현정 앵커는 "라디오 앵커가 앵커상을 받는 일이 드문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여성 앵커·PD 출신으로 앵커상을 수상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열정과 헌신으로 뚫힌 '뉴스쇼' 제작진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앵커는 "이 모든 영광을 부족한 세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말해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울 한신교회(담임목사 강용규)의 집사이기도 한 김현정 앵커는 "CBS 뉴스는 언론이 통제 받던 군사독재 시절 바른 소리를 내는 유일한 방송이었습니다"라며 "예수님처럼 선(善)을 선이라 말하고 악(惡)을 악이라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며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기독교방송을 접하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역만리 고된 선교사역 CBS TV 보며 갈증해소

한여름에 찾아온
세계선교지에서의
기쁨

신록이 한창 짙어가는 여름,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7월 하순 어느날 오후에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님 사모님(사진 오른쪽)이 딸(왼쪽)과 함께 CBS를 방문해 미화1000달러를 헌금하면서 사역지에서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과테말라로 가기전 CBS 찾아
감사말씀 전하며 행복한 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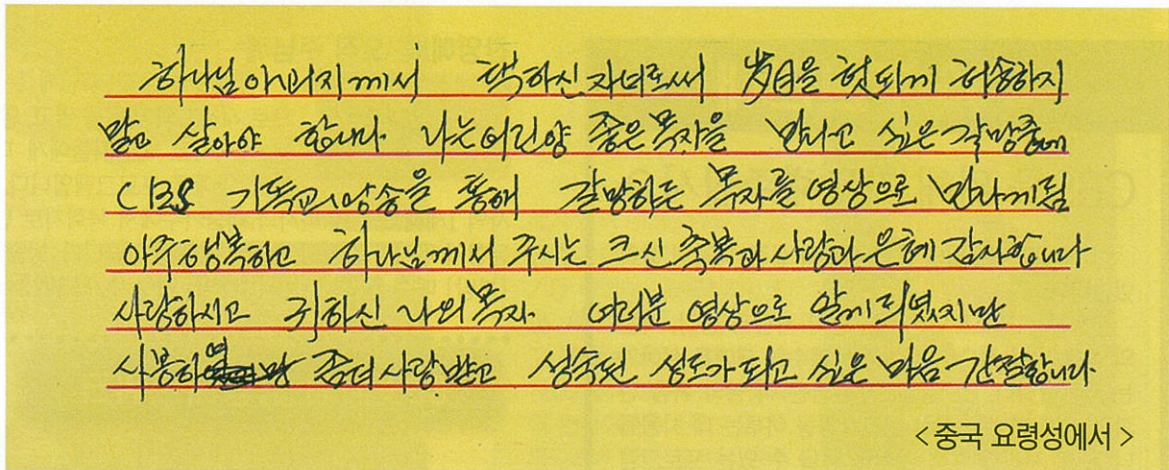
#1 이역만리 먼 곳에서 늘 말씀을 그리워하며 영적인 갈급함으로 목말라하다 위성TV를 통해 CBS방송을 시청하게 되면서부터 모든 것이 변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CBS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매일 매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며 이로 인해 삶의 자세와 모습도 변화되어 생활하신다고요. 지옥 같아 보이던 세상이 이제는 천국으로 변했으며 날마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경험하신다며 말씀하시는 내내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과테말라로 다시 출국하기 전 CBS를 방문해 감사와 감격을 전하지 않고서는 출국을 못할 것 같아 방문했다고 말씀하실 때 저희들도 함께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과테말라로 돌아가신 사모님께서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내 조국의 방문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CBS 방문도 놀라운 시간이었구요. 주신 선물 비행 오는 시간 너무나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성서학당 목사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CBS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내 삶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방송선교를 통하여서 느낀 나의 작은 마음입니다. 사랑합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 과테말라에서 김현숙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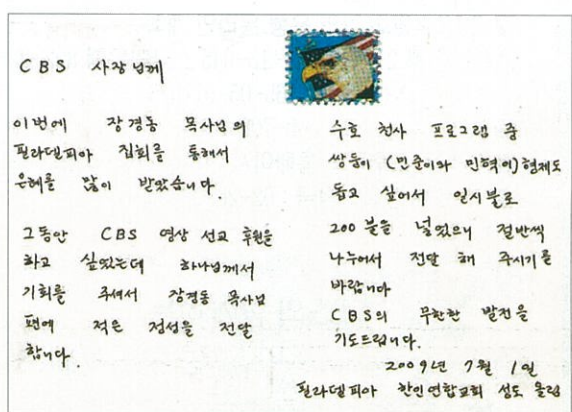


소중한 성금과 함께 편지 보내와 전세계 성도들 따뜻한 후원 감동

#2 장경동 목사님께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부흥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성도가 미국의 CBS에 전해달라며 미화 200달러와 편지글을 건네주어 장경동 목사님이 직접 갖고 CBS에 오셨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또 중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 CBS의 방송선교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실 창너머로 부서져 들어오는 햇살은 어느새 가을빛이 완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방송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 끊임없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힘을 얻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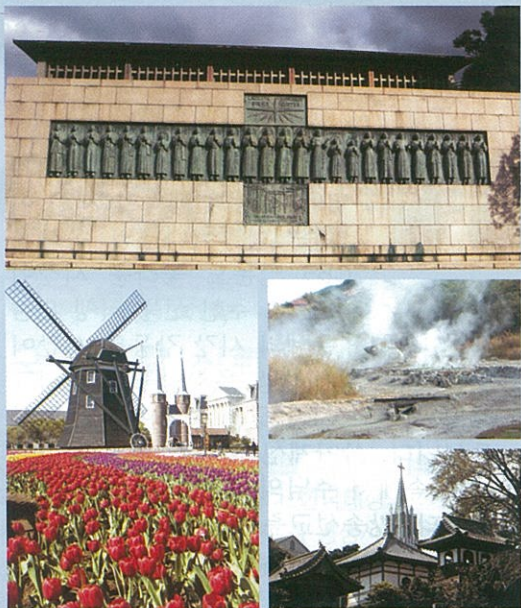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 소식이 전해져온 바로 그곳에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시청자 한 분 한 분이 이미 방송선교사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고 계신 한국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기쁨이 감사드립니다. CBS선교후원회

CBS 일본 성지순례 매주 월요일 출발

CBS는 척박한 일본 땅에 복음의 기운을 불어넣기 위한 '땅밭기 기도'의 일환으로 'CBS 일본 기독교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최초의 순교지,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통해 순교함으로 신앙을 지킨 초기 일본 기독교인들의 순수 신앙을 되새기고, 일본 복음화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확인하는 성지순례에 교회와 목사님의 기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성지순례 지역 : 일본 큐슈지역 순교지 (나가사키 26인 순교지, 교회와 절이 공존하는 히라도, 오오 무라 순교지 등)
- 일정 : 매주 월요일 출발 (3박 4일)
- 문의 : 070-8288-5505



맨위 왼쪽부터 나가사키 26성인 순교지, 운젠지옥순교지, 히라도, 하우스텐보스.

CBS 후원안내

CBS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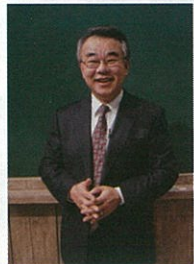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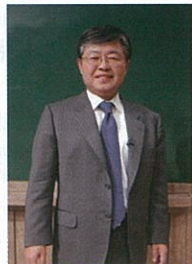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사랑과 섬김,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나눔의 삶을 나의 삶으로 재현하며 예수의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CBS선교 후원금은 이 땅의 복음 전파와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됩니다. 또 지친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여집니다.

- CBS후원회 가입 은행 온라인 계좌
△우리은행 212-001999-13-045 △국민은행 802-25-0009-268 △신한은행 265-05-017926
- ARS 후원전화 : 060-700-0500
- CBS선교후원회 홈페이지 : love.cbs.co.kr
- TV본부 선교협력국 : 02-2650-7950



CBS TV 가을개편 안내



맨위 왼쪽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새롭게 하소서', '만사형통', 송재호 장로의 QT '동행', '서바이벌퀴즈왕', 신우인목사, 송태근목사.

1200만 크리스천 대표TV 땅끝까지 복음전파, 하나님나라 확장

최장수 신앙간증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1980년 9월 방송을 시작한 [새롭게 하소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크리스천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연기자 출신 임동진 목사와 고은아 권사의 진행으로, 방송 29주년을 맞는 오늘도 다양한 크리스천들의 은혜로운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방송시간 : [본방] 월~금 밤 10시 [재방] 화~토 아침 10시

송재호 장로의 QT '동행'



[송재호 장로의 QT '동행']은 CBS TV 가을 개편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아침 묵상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와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송재호 장로의 인도와 어쿠스틱 찬양이 어우러지며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묵상과 기도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방송시간 : 월~토 아침 7시 10분

찬양예배 '오직 주님께'



[찬양예배 오직 주님께]는 찬양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열고, 영성 있는 메시지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는 찬양예배 프로그램입니다. 찬양 사역 1세대 노문환 목사와 대중가수에서 목회자로 변신한 윤희기 목사가 감동의 찬양과 예배를 이끕니다. 방송시간 : [본방] 매주 월/화 낮12시 [재방] 매주 수/목 밤12시

성경을 재미있고 쉽게 배운다 'CBS 성서학당'



[CBS 성서학당]은 질문과 대답, 대화를 통해 펼쳐지는 열린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신우인 목사, 김동호 목사 등 명강사진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안에 숨어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제별, 인물별로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시간 : [본방] 월~토 아침 10시 55분 [재방] 월~토 밤 8시 55분

CBS 해외 방송네트워크

R 20개, TV 18개, 인터넷 40개

